

2021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열 B형)

(가) 이집트의 나우크라티스라는 도시에 테우트라는 신이 살고 있었다. 이 신은 인간에게 유용한 여러 가지를 발명했다. 그중에서도 테우트가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내세운 것은 **문자**였다. 테우트는 으레 하던 대로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던 타모스왕에게 가서, 문자가 널리 쓰이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말했다.

“오, 위대한 왕이여, 이 발명품은 이집트인들이 더 지혜로워지게, 또 더 잘 기억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과 지혜의 묘약입니다.”

그러자 타모스왕이 말했다.

“재주 많은 테우트 신이여, 우리 중의 한쪽은 유용한 발명을 했고 또 한쪽은 그 발명이 인간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판단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당신은 문자의 아버지로서 그것을 편애한 나머지 문자 사용이 가져올 결과와는 반대되는 효과를 앞세워 나를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문자가 기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배우는 사람의 망각을 부추길 뿐입니다. 문자를 배우면, 그것에만 의존하여 기억을 소홀히 하게 되고, 자신의 내적 능력으로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부호를 통해서만 기억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발명한 것은 기억의 약이 아니라 회상의 약입니다.

또 당신은 그 발명품이 지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배우는 사람은 지혜의 실재가 아닌 외양을 가지게 될 뿐입니다. 그 발명품 때문에 사람들은 배움이 없이도 여러 가지를 주워들게 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은 가장 곤란한 상대가 될 것입니다.”

(나) 백 주사는 흔연히 수작을 하면서 내색은 아니 하나, 어심엔 미스터 방이 꽤 씩씩하기 짝이 없었다.

향리의 예법으로, 십 년 장이면 절하고 뵈어야 한다. 무릎 꿇고 앉아야 하고, 말은 깎듯이 공대를 해야 한다. 그 앞에서 주초(酒草)가 당치 않고, 막부득이한 경우면 모로 앉아 잔을 마셔야 한다. 그런 것을, 마치 제 연갑 친구나 타관 나그네게나 하는 것처럼, 백 상이니, 술 드슈, 조백이시지 하고 말버릇이 고약해, 발 개키고 앉아서 정면하고 술을 먹어, 담배 빼끔빼끔 피워, 이런 꽤 씩씩할 도리가 없었다.

또 나이도 나이려니와, 문벌이나 지체를 가지고 논한다면, 이견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

미스터 방의 증조가 타관에서 떠들어온 명색 없는 사람이었다. 그 조부가 고을의 아전을 다녔다. 그 아버지가 짚신 장수였다. 칠십에, 고로롱고로롱 아직도 살아 있지만, 시방도 짚신 곱게 삼기로 고을에서 첫째가는 방 첨지가 바로 그였다. 그리고 이 방삼복이는…….

먹고 자고 공공 일하고, 자식새끼 만들고 할 줄밖에는 모르는 상일꾼이었다. 그러나 삼십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이 집 저 집 살고 다니는 코빼퐁이 삼복이었다. 물론 낮 놓고 기억 자도 못 그리는 판무식이었다.

상일꾼일 바엔 남의 세토(稅土) 마지기라도 얻어 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삼십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고 다니던 코빼퐁이 삼복이가 하루아침 무슨 생각이 났던지, 돈벌이를 간담시고, 조석이 간데없는 부모에게다 처자식 떠맡기고는 훌쩍 일본으로 떠나 버렸다. 그것이 열두 해 전. (...)

서울로 올라와서는 현저동 비탈의 다 찌부러진 행랑방을 얻어 살면서, 처음 일 년은 용산 있는 연합군 포로수용소엘 다니며 입에 풀칠을 하였고 - 이 동안 그는 상해에서 귀로 익힌 토막 **영어**가 조금 더 진보되었고.

다시 일 년이나는, 그것 역시 상해에서 익힌 것을 밀천 삼아, 구두 직공으로 구둑방엘

다니며 그럭저럭 살았고. 그러다 일본이 싸움에 지느라고 구두를 너무 해트려 가죽이 동이 나서 구두방이 너나없이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번엔 꺾박 한 개 걸머지고 신기료장수로 나서고 말았다. (...)

‘흥, 개구리가 올챙이 적을 못 생각한다더니, 발칙한 놈. 고안 놈.’

백 주사는 생각하자니 속으로 이렇게 분개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변으로는, 그러던 코빼똥이 삼복이가 그야말로 선영이 명당엘 들었던 말인지, 무슨 조화를 지녔단 말인지, 불과 몇 달기간에 이렇게 훌륭히 되고, 부자가 되고, 미씨다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가 되고 하여 가지고는 갖은 호강 다하며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고, 기광이 나서 막 이러니, 한편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한 안타깝기도 하였다.

‘사람의 운수란 참 모를 일이야.’

백 주사는 속으로 절절히 이렇게 탄복도 아니치 못하였다.

코빼똥이 삼복의 이 눈부신 발신은, 그러나 백 주사가 희한히 여기는 것처럼 무슨 명당 바람이 났다거나 조화를 지녔다거나 그런 신기한 곡절이 있는 바가 아니요, 지극히 간단하고도 수월한 것이었다. 다투 몸이 지닌 재주 가운데 총기가 좀 좋아서 일찍이 영어 마디나 익힌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일종의 특수 조건이 없던 바는 아니지만.

후략 부분의 줄거리▶ 신기료장수를 하던 방삼복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해방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러던 중 미군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것을 보고 통역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미군 장교인 S 소위에게 접근한 방삼복은 그의 통역이 되면서 미스터 방으로 불리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미스터 방은 S 소위를 등에 업고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된다. 해방이 되면서, 친일 행위로 모은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된 백 주사는 미스터 방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복수를 부탁한다.

(다) 기술이 일과 직업 그리고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은 산업 시대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1810년대 영국 섬유 노동자들은 방직기 도입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방직기는 산업 혁명 발아기의 기계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그때 이후로 기술이 새롭게 진보할 때마다 신기술이 노동을 대규모로 대체할 것을 우려하는 파문이 일었다.

이 논쟁의 한 축에는 신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자동화를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특징으로 설명했다. 1930년 전기와 내연 기관이 도입된 뒤, 케인스는 이러한 혁신이 물질적 번영을 가져오겠지만 동시에 ‘기술적 실업’을 만연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1964년 컴퓨터 시대의 여명기에 미국의 과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존슨 대통령에게 컴퓨터에 의한 자동 제어가 거의 무한한 생산 능력을 가진 시스템을 낳고 인간 노동에 대한 요구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경쟁에서 앞서가면서 많은 노동자를 낙오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이 논쟁의 다른 한 축에는 노동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19세기 중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질 임금과 일자리 수가 비교적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미국 국립 과학 아카데미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든다. 이 견해는 주류 경제학 내에서 충분한 동력을 얻었고 기술 발전이 인간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노동 총량의 오류’로 무시되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일의 양은 무한하게 증가하므로 고정된 ‘노동 총량’이란 없다. 따라서 기술 발전이 인간의 고용을 감소하게 하리라는 생각은 오류라는 것이다.

1. 제시문 (가)에서 타모스왕의 ‘문자’에 대한 견해와 제시문 (나)에서 백주사의 ‘영어’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시오. (250점, 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2.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를 근거로 제시문 (가)의 타모스왕을 비판하시오. (450점, 800~9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